

목포 새 랜드마크 '타워등대' 불 밝힌다

市, 대전아쿠아월드와 BTO방식 오늘 투자협약

죽교동 1만2651㎡에 아쿠아리움 등 2014년 완공

목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목포타워'건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목포시는 해양복합문화 공간(일명 타워등대) 조성을 위해 13일 전남도청 정약홍실에서 (주)대전 아쿠아월드(대표 이기선)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시에 따르면 죽교동 547-8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2651㎡ 규모로 건립될 해양복합 문화공간에는 아쿠아리움, 등대 전망대, 체험 키즈

랜드, 생태연구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BTO'방식(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목포시에 기부 채납)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도비 45억, 시비 35억, 민자 410억 원 등 총 490억원이 투자돼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목포시는 대상 사업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되며, 대전 아쿠아월드는 아쿠아리움과 '타워 등대' 등을 조성하게 된다. 한편 투자기업인 (주)대전 아쿠아월드는 대전 중구 대사동에 아쿠아리움 수조 4000t(서울 코엑스 수조 2500t)을 보유한 업체로, 세계 최초 천연동굴형 수족관과 전국 최대 답습어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성기자 yousou@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청정바다 만든다

해남 전국 최초설치 큰 호응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 어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 군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 수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송지면 학가와 황산면 성산 어촌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소의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했다. 최근 오는 11월 말까지 송지면 사구 어촌계, 화산면 관동어촌계, 문내

면 입하 어촌계 등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어업인들이 해양 쓰레기를 육지까지 가져오는 것을 꺼려하고, 악취 때문에 다시 바다에 던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해 해양 선상 집하장을 추진하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연간 300여t의 해양 쓰레기를 선상 집하장을 통해 수거해 처리,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에 고품질 쌀 주식회사

배추·고구마 이어 세번째

쌀 재배는 33명 참여 설립

해남에 배추와 고구마에 이어 쌀 주식회사가 설립된다. 해남군은 최근 대표특산품인 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위해 농업회사법인 '해남 고품질 쌀 주식회사'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발기인 총회에는 쌀 재배농민 33명이 참여했으며 1억2000만원의 자본금도 확보했다. 대표이사에 배종남, 이사에 민상홍씨를 비롯해 6명, 감사에 김종열씨 등 2명이 선임됐다. 오는 12월까지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마무리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남고품질쌀씨는 기존 해남을 쌀농회 영농조합법인을 규모화·기업화해 시장지향적이고 전문화된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식회사가 출범하면 농가가 쌀 생

산에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지며 철저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함평 '참속' 개발

속떡 브랜드 육성

함평군이 친환경 약초인 속을 이용한 '속떡'을 지역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군은 속 품종선발 비교시험을 통해 '함평참속'을 개발·선발해 현재 12만주를 생산(1ha 당 27t)·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완료했다. 또 군은 '속떡 가공단지' 1개소를 선정하고 ▲속떡 생산단지 공동가공시설 ▲속 떡 시설택배 ▲노지 속 재배 ▲판데·포장박스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황윤익기자 hwang@



섬지역 주민에 식수 지원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직원들이 최근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곡도 등 10개 도서주민들에게 지원할 PET 병물을 행정선에 싣고 있다. 서부사무소는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을 받아 지난 4월 7, 6월에 5t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 5t을 지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신안군 공무원 갈등 군민들만 피해

공노조-공직협 '조합비 부당사용' 등 상호 비방

'한지붕 두가족' 대립... 군정발목·지역발전 저해

'한지붕 두가족'으로 양분된 신안군 공무원노조의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 노조의 상호 고소·고발로 감정과 골이 깊어지고 행정력 낭비로 애꿎은 군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안군 공무원 노조는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 신안군지부'와 지난해 11월 기존 노조에 반발 6급당들이 주축이 돼 창립한 '신안군 직장협의회'로 양분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다.

전공노 신안지부는 지난 1월 행정 안전부 감사로 드러난 지도을 행정 7급직원을 징계하는 대신 승진시각 박우량 군수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리행위사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직장협의회는 '전공노 신안군지부장이 노조비 1억 8000만원을 횡령했다'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했으나 '횡령없음'으로 처리 종결됐다. 전공노 신안군 지부장은 자신을 걸

찰에 고소·징정한 당시 신안군 직장협의회 회장 등 관련자 15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노 신안군지부는 조합원들의 예금 금융정보가 군수 부속실 직원을 통해 불법으로 유출된 후 신안군 직장협의회가 이를 이용해 검찰에 고소·징정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불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해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신안군 공직사회의 분열에 대해 지역에서는 상호 비방과 반목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전 북

새만금 생태환경영지일대 준설

적조발생 등 수질악화 우려

군산발전협 계획 수정 요구

새만금방수제 공사용 매립토로 생태환경영지 일대의 준설토(파낸 흙)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군산시 발전협의회 새만금분과위원회(위원장 신문섭 군산대 토목공학 교수)는 12일 '새만금 내측 생태환경영지 준설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생태 환경영지 구간의 준설 계획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분과위는 지난달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생태환경영지 구간에서 1억4000만㎡를 파낼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심 5~15m 깊이의 준설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에 부영양화 현상이 가중

돼 수질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준설로 담수면적이 넓어져 호수내 물의 체류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많은 영양물질과 염도로 적조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수가 발생하면 만경강에서 떠내려온 물이 저류지인 생태환경영지 주변으로 흘러 이 구역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수질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신 조성될 새만금 신항에 10만t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준설지역을 신항 조성지 바깥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전체 필요한 매립토 7억6000만㎡ 중 5억7000㎡를 방조제 내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성기자 nogusu@



정읍 차문화 축제

해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정읍 차문화축제' 행사장을 찾은 다도(茶道) 애호가들이 녹차를 시음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읍 차산업 발전 토대와 생활속 차문화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도심 골목길에 문화 담는다

맛·영화거리 등 테마별로 꾸며 '다들길' 900m 조성

전주시는 시내 골목길을 맛과 영화 등 '테마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전주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주관의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주 구도심 특화거리와 연계한 '골목길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디자인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제안평가를 완료하고 이달 중에 구간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연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완산구 고사동 일원 특화거리인 '걷고 싶은 거리'와 '영화의 거리', '청소년 거리' 주변 7개 골목길로 전체 길이는 900여m에 달한다. 이들 골목길은 유명 음식점, 영화

소품이나 음반 매장, 의류 매장 등이 각각 집적화해 있으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시는 각 골목의 특성에 맞게 바닥과 담을 디자인하고, 특성을 살리는 각종 소품도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도 특성에 맞게 만들어 달기로 했다. 전주시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 뒤 사업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주시 정응환 도시경관 담당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골목길의 정취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추억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길 고유명칭은 '하는 일마다 모두 북이 온다'는 의미를 담아 '다들길'로 정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한옥마을에 승용차 183대 규모 '한옥 주차장'

전주시는 한옥마을 입구에 한옥마을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지붕과 담을 한옥 형태로 만든 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 주차장은 지하와 지상 1층, 옥상 등 3개 층으로 구성되며 승용차 183대를

뉴스 브리핑

전주 비빔밥 축제 20~23일 한옥마을서

전주 비빔밥과 한정식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2011 전주비빔밥축제'가 오는 20~23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빔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서는 최고의 비빔밥, 한정식 요리사를 뽑는 '나는 셰프다'와 일반인이 참여해 다양한 형태의 비빔밥과 한

정식을 만들어보는 '라이브 요리 경연'이 진행된다. 전주의 특산물인 마나리, 콩나물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음식을 만드는 '전주 십미(十味) 경연', 페덱음식과 한식만찬 부문의 최고 요리사를 뽑는 경연대회도 잇따라 열린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원광대 인문학학 '성찰과 치유' 국제학술대회

원광대학교 마음 인문학연구소는 13~14일 이틀간 서울 한국 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마음 인문학, 철학적 성찰과 사회적 치유'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서양 저명 철학자들이 모여서 사상 속의 의미를 연구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제철학회 연맹 회장이자 퍼듀대 교수인 윌리엄 맥브라이드의 '서양사상의 마음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비롯해 '러시아 정신의 이타주의'(러시아 극동문제 연구소 개리시 유가이 교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 쌀 200t 수출용 '햇반' 원료 납품

군산에서 생산된 쌀 200여t이 수출용 '햇반' 원료로 CJ 제일제당에 납품된다. 군산시는 '쌀수출 생산단지'로 조성된 개성고대야의 논(60여ha)에서 재배된 쌀 200t을 수출용 햇반 제품의 원료곡으로 납품하기로 했다"고 12

일 밝혔다. 햇반 원료로 납품되는 '보람찬반'는 낱알 수가 많고 차지 않아 햇반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시는 이번 납품에 이어 나머지 200t도 국내 업체에 '햇반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성기자 nogusu@

김제경찰 치안정책 담은 치안복지소리 운영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주민이 느끼는 체감치안과 경찰 활동에 대한 바람을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치안복지소리' 제도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경찰은 최근 시민 360명을 대상으로 '치안복지소리' 3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서장·직원들의 사화단체 참여, 수사과 소관사건에 대한 진정상황 중간통보, 구역별 순찰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도출됐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시설가지' 1000㎡당 1000만원 소득

道內 최고 소득작물로

전북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은 '시설가지'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재배된 35개 작목 및 작형에 대한 소득을 조사한 결과 시설 가지의 소득이 1000㎡당 1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느타리버섯(920만원)과 시설 방울토마토(610만원)가 뒤를 이었다. 2009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작물은 가을 배추, 고랭지 무, 노지 수박 등이었고, 결구비와 땅콩, 시설 딸기 등은 25~43% 하락했다. 전북도 농기원은 "재배면적과 작형에 따른 생산물량의 증감과 수입 농산물 등으로 작목에 따라 소득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득조사결과를 농가 경영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